

## 韓國 古代 耳飾의 着裝方式 研究

A study on wearing ear ornaments in the Ancient Korea

---

저자 (Authors)	주경미 Joo, Kyeong-Mi
출처 (Source)	<a href="#">역사민속학</a> , (17), 2003.12, 31-54 (24 pages) <a href="#">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forklife</a> , (17), 2003.12, 31-54 (24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역사민속학회</a> The Society For Korean Historical-Folklife Studies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70243">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70243</a>
APA Style	주경미 (2003). 韓國 古代 耳飾의 着裝方式 研究. 역사민속학, (17), 31-5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30 15:4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韓國 古代 耳飾의 着裝方式 研究

\* 주 경 미

1. 머리말
2. 韓國 古代 耳飾의 종류
3. 太環耳飾의 기원과 착장방식
4. 圓板形耳飾의 기원과 着裝方式
5. 맺음말

\* 서울대학교 강사

# 1. 머리말

인체를 장식하기 위해서 제작된 각종 장신구들은 상고시대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다. 장신구의 착장은 단순히 신체를 꾸미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착장자의 신분이나 지위를 표시하기 위한 威勢品이나, 각종 종교 및 사회의례를 위한 제의용으로 착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고대 장신구들도 역시 착장자의 신분 및 지위를 나타내는 위세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생각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신라 고총고분에서 출토되는 각종 금속제 장신구들이다.

고분출토 장신구 중 가장 화려하고 대표적인 金冠의 성격에 대해서는 김병모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논의되어 왔으나, 다른 장신구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sup>1)</sup> 금관을 비롯한 금속제 장신구들은 일상용이 아닌 葬送用으로 제작된 특수 장신구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지만,<sup>2)</sup> 최근 학계에서는 이들을 실제로 사용되던 威勢品으로서의 장신구이자 동시에 복식의 일부로 해석하고 있다.<sup>3)</sup>

耳飾은 귀걸이, 혹은 귀고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귀를 장식하는 장신구의 한 종류이다. 耳飾은 귀장식인 경우도 있지만, 같은 형태로서 冠이나 허리띠의 드림장식, 또는 발 장식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sup>4)</sup>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되는 耳飾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金冠이나 鈿帶에 비해 수량이 현

---

1) 고신라 금관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상당히 많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김병모,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1998; 李松蘭, 「新羅冠의 成立과 始祖廟祭祀」, 『美術史學研究』 제235호, 2002, 5~34쪽 참조. 신라시대 장신구의 착장의미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李熙濬, 「45세기 신라 고분 피장자의 服飾品 着裝 定型」, 『韓國考古學報』 제47집, 2002, 8, 63~92쪽 참조.

2) 黃沍根, 『韓國裝身具美術研究』, 一志社, 1976, 155-161쪽 및 189~198쪽. 尹世英, 『古墳出土 副葬品 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8, 307~309쪽.

3) 李松蘭, 앞의 논문, 12~13쪽 참조.

4) 고분에서의 출토위치에 따라 垂下付耳飾의 형태를 하고 있더라도 모자나 冠, 혹은 허리띠의 드림장식으로 사용된 예도 종종 있다. 금관이나 과대의 드림장식이 확실한 경우에는 垂飾으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출토위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형태상의 특징을 따라 耳飾으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

저하게 많다. 또한 제작기법면에서 볼 때, 제작수준이 상당히 높고 어려운 누금세공기법이나 뿔, 판금기법 등이 사용되어 단시간 내에 무덤에만 부장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sup>5)</sup> 그러므로 이들은 한정된 계층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위세품으로서의 장신구로 파악된다.

고분출토 耳飾이 일상용 장신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온 가장 큰 원인은 太環耳飾과 같이 主鑲이 거대한 예가 많기 때문이다. 主鑲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서 귀에 직접 매달지 못했던 것으로 본 것이다.<sup>6)</sup> 그러므로 이제까지 삼국시대의 耳飾들은 귓볼에 끼우거나 끈에 매달아서 귓볼에 매다는 방식으로 착장되었다고 보아왔다. 이렇게 끈에 매달아서 귓볼에 걸었을 경우에 귀걸이를 착장하고 행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 耳飾은 장송용으로 생각된 것이다. 그러나 귓볼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 크기를 크게 늘려서, 거기에 太環耳飾과 같이 主鑲이 거대한 耳飾을 착장하는 것은 실제로 근세까지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에서 행해져왔다. 그러므로 主鑲의 크기로 착장의 실제 가능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본고에서는 耳飾의 출토예가 가장 많은 고신라시대부터 통일신라 초기까지의 여러 耳飾들의 착장방식이 어떠한지, 문헌기록과, 인도 및 동남아시아 등 외국의 이식 착장 방식을 비교검토해보고자 한다.

## 2. 韓國 古代 耳飾의 종류

우리나라의 古代 耳飾은 일반적으로 素鑲耳飾과 垂下付耳飾이 가장 많으며 예외적인 圓板形耳飾(耳栓)이 있다. 이 중에서 素鑲耳飾과 垂下付耳飾은

---

5) 삼국시대의 耳飾에 대해서는 周旻美, 「三國時代 耳飾의 研究 - 慶州地域出土 垂下付耳飾을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제211호, 1996. 9, 5~28쪽 및 李漢祥, 「5~6世紀 新羅 太環耳飾의 分類와 編年」, 『古代研究』 제6호, 1998, 33~60쪽 참조. 삼국시대 耳飾의 제작기법에 대해서는 周旻美, 「三國時代 耳飾의 製作技法」, 『古代研究』 제5호, 1997, 105~140쪽 참조.

6) 黃珪根, 앞의 책, 189~198쪽.

각각 主環의 크기에 따라 細環式과 太環式으로 세분된다. 素環耳飾은 主環만 있는 것이며, 垂下付耳飾은 主環 아래에 각종 드림장식이 달린 것이다. 垂下付耳飾은 드림장식의 형태와 구성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으로 세분될 수 있다.<sup>7)</sup> 三國時代 古墳에서 출토되는 垂下付耳飾과 素環耳飾은 金이나 金銅 같은 금속으로 만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耳飾의 着裝方式과 관련되어 주목된 것은 드림장식의 有無보다는 主環의 크기, 즉 細環式인지, 혹은 太環式인지의 여부였다. 세환식의 경우에는 고리가 가늘어 구부리기 쉽기 때문에 컷볼에 고리를 구부려 끼워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반면 태환식의 경우에는 고리 부분이 너무 크고 굵기 때문에 고리를 구부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며(도 1), 고리의 양쪽 열린 부분이 거칠게 처리되어 있어서 실제 사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즉 착장방식은 주환의 크기에 의해서 可否가 논의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주환의 크기에 따른 분류를 우선시하여, 古代 耳飾을 細環耳飾, 太環耳飾, 그리고 예외적인 圓板形耳飾 등 세 종류로 나누어 고찰하겠다.

삼국시대 고분에서는 주로 細環耳飾과 太環耳飾만이 출토된다. 이 중 세환이식은 삼국 모두에서 출토되는 반면, 태환이식은 고신라와 고구려에서만 출토될 뿐이다. 이제까지의 연구로는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착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세환이식은 남자가, 태환이식은 여자가 착용했다고 알려져 있다.<sup>8)</sup> 이들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은 6세기말 이후에는 그 예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異形耳飾인 圓板形耳飾은 소위 ‘耳栓’, 혹은 ‘環狀耳飾’이라고도 불리운다(도 2).<sup>9)</sup> 둥글고 납작한 실패 형태의 원판형이식은 표면에 조밀한 동심원이 새겨진 예가 많고, 측면은 오목하게 처리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

7) 素環耳飾과 垂下付耳飾의 형식분류에 대해서는 周昞美, 앞의 논문(1996), 8~10쪽 참조. 垂下付耳飾의 형식분류는 사실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연구자별로, 혹은 논문별로 분류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8) 李熙濬, 앞의 논문, 80~82쪽.

9) 齋藤忠, 『日本考古學用語辭典』, 東京: 學生社, 1992, 190쪽. 野間清六 編, 『裝身具』, 日本美術 1, 東京: 至文堂, 1966, 7쪽.

는 신석기시대부터 간헐적으로 한반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 출토 예가 많지 않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것도 대부분 용도미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耳飾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원관형이식은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예가 극히 드물지만, 신라의 불교 유적에서 몇몇 예가 출토되었다. 이들 원관형이식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용도미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착장방식에 대한 논의도 없는 형편이다.

삼국시대 이식의 착장방식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은 대체로 실제 착장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으며, 특히 태환이식의 경우에는 垂飾이나 葬送用品으로 보아왔다.<sup>10)</sup> 이러한 기존의 견해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일 뿐이며, 문헌기록이나 다른 주변국가의 고고학적, 혹은 민속학적 예들과의 비교 검토를 통한 연구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고대 耳飾에 대한 문헌기록으로는 『後漢書』와 『三國志』 등의 「東夷傳」 韓條의 기록과 『翰苑』, 「高麗」條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東夷傳」의 기록에 의하면 “옥과 구슬을 財寶로 여겨서, 혹은 옷에 매달아 장식하기도 하고, 혹은 목에 걸거나 귀에 드리우기도 한다”고 하여 옥이나 구슬로 귀걸이를 했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이 기록의 내용에서는 耳飾의 착장방식이나 형태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삼국시대 耳飾의 착장방식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문헌기록으로는 『翰苑』, 「高麗」條의 기록을 들 수 있다.

고려의 부인은 흰 옷을 입고 남자 옷에는 비단을 묶고 금으로 만든 방울을 단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幘을 쓰고, 금으로 사슴 귀 모양을 만들어 幘 위에 붙인

10) 黃丕根의 경우에는 細環耳飾은 귓볼에 고리를 구부러 끼워서 착장하고, 太環耳飾은 끈에 꿰어 피장자의 귓볼에 걸어 달았다고 보았다. 黃丕根, 앞의 책 참조. 尹世英의 경우에도 古墳出土 耳飾을 실제 착장품이 아니라 葬送用品으로 해석하고 있다. 尹世英, 앞의 책, 240~242쪽.

11) “...以環珠爲財寶 或以綴衣爲飾 或以懸頸垂耳...” 『三國志』 卷30, 「魏書」 第30, 東夷傳 韓條.

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折風을 쓴다. 金鑲으로 귀를 뚫고, 상의는 흰 적삼을 입고, 아래에는 긴 바지(長袴)를 입는다. 허리에는 銀帶가 있는데, 왼쪽에는 罽毼(礪)을 차고 오른쪽에는 五子刀를 찬다.<sup>12)</sup>

위의 기록은 삼국시대 고구려에서 남자가 귀를 뚫고 금속제 耳飾을 착용하던 풍습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아쉽게도 신라와 백제의 耳飾 着裝에 대한 문헌은 없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의 풍속과 의복은 대체로 같았다고 알려져 있다.<sup>13)</sup>

현존하는 유물로 보면 고구려에서는 세부 형식에서 신라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유사한 金屬製 太環耳飾과 細環耳飾이 상당수 출토되고 있다. 또한 신라 황남대총 북분에서는 고구려 耳飾과 형식적으로 상통하는 太環耳飾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신라와 고구려의 耳飾은 형식뿐만 아니라 착용 방식에서도 공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신라와 고구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細環耳飾과 太環耳飾의 着裝方式은 모두 귓볼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主鑲을 끼워 넣는 piercing 방식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한편, 고신라 말기에 새로이 유행하기 시작한 圓板形耳飾의 경우에는 착용 방식의 실례를 알려 주는 문헌기록이나 자료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太環耳飾의 착용방식이 귓볼에 구멍을 뚫고 끼워 넣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圓板形耳飾도 역시 동일한 방식, 즉 귓볼을 뚫고 그 구멍에 끼워서 착용하는 piercing 방식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한국 고대 耳飾을 細環耳飾, 太環耳飾, 圓板形耳飾 등 세 종류로 분류하고, 문헌상에 기록된 耳飾의 착용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다음에서는 이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되는 太環耳飾과 圓板形耳飾의 착용방식에 대해서 인도 및 동남아시아의 예들과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2) “...高麗婦人衣白 而男子衣結錦鈴以金銀 貴者冠幘 而後以金銀爲鹿耳 加之幘上 賤者冠折風 穿耳以金鑲 上衣白衫 下曰長袴 腰有銀帶 左佩礪 而右佩五子刀...” 竹內理三校訂, 『翰苑』(福岡: 太宰府天滿宮文化研究所, 1977), 40쪽.

13) “新羅國...風俗刑政衣服 略與高麗百濟同...” 『隋書』卷81, 「列傳」第46, 東夷傳 新羅條.

### 3. 太環耳飾의 기원과 착장방식

太環耳飾은 현재까지는 고구려와 신라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주로 여자가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알려진 태환식 중에서 가장 이른 것은 고구려 평양역전고분군의 永和九年(353)銘博 출토 고분에서 발견된 태환식 素環耳飾이다.<sup>14)</sup> 신라에서도 비슷한 시기로 추정되는 경주 월성로 가-13호분에서 태환이식이 발견되었는데,<sup>15)</sup> 고구려와 신라 어느 쪽에서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거의 동시기에 양쪽 지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金工技法과 形式的 측면에서 신라의 예가 보다 발전된 양식에 속한다. 경주 월성로 가-13호분 출토 태환이식이 이미 완성된 기법과 형식을 갖춘 垂下付耳飾인 점에 비해서 고구려의 것은 단순하고 초보적인 형태의 素環耳飾이기 때문이다.

太環耳飾의 기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실하지 않다. 최근 이인숙 선생은 太環耳飾의 기원이 기원전 16-12세기경 이집트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견해를 발표하였으나,<sup>16)</sup> 이는 4세기 중엽 이후 한반도 출토 태환이식과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거리가 너무 멀다.

금속제는 아니지만, 太環耳飾과 형태나 착장방법상 유사한 玉石製 玦狀耳飾은 신석기시대부터 중국 강남지역 및 요녕지역, 일본, 한반도 남부지방 및 동남아시아 베트남 동다우 및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이르기까지 해안선을 따라서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도 3).<sup>17)</sup>

14) 永和九年銘博出土 古墳에서는 太環耳飾 1점과 細環耳飾 1점 등 모두 2점이 출토되었다. 朝鮮古蹟研究會, 『昭和七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 朝鮮總督府, 1935, 9쪽 및 圖版 11 참조.

15) 永和九年銘博 출토 고분 耳飾과 월성로 가-13호분 출토 耳飾에 대해서는 周旻美(1996), 13~14쪽 참조.

16) 李仁淑, 「金과 琉璃 - 4~5世紀 古代 韓國과 실크로드의 遺寶」, 『中央아시아 研究』 제2호, 1997, 70-72쪽.

17) 우리나라보다 신석기시대의 玦狀耳飾의 출토예가 다양하고 많은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樋口清之, 「玦狀耳飾考 - 石器時代身體裝飾品之研究 其一」, 『考古學雜誌』 제33권 제1호, 1933, 36~50쪽 및 「玦狀耳飾考(二) - 石器時代身體裝飾品之研究 其二」, 『考古學雜誌』 제33권 제2호, 1933, 107~115쪽. 특히 玦狀耳飾의 기원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동삼동패총과 청도 사촌리유적 등에서 신석기시대의 石製 玦狀耳飾이 출토된 바 있다.<sup>18)</sup> 이들 신석기시대의 玦狀耳飾과 三國時代의 金屬製 太環耳飾과의 직접적인 연결은 시간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어려운 편이지만, 피어싱의 풍습이 간간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태환이식과 유사한 형태의 금속제 이식은 동남아시아에서 비교적 일찍부터 제작되었다. 남부 베트남의 오크에오(Oc Eo) 유적에서는 太環耳飾의 형태를 금속제 주물로 뜨기 위한 石範이 출토된 예가 있다(도 4). 발굴된 장방형의 石範에는 세 개의 太環耳飾과 2개의 細環耳飾 등을 제작하기 위한 음각형태가 새겨져 있다. 원래는 1쌍으로 구성된 이 석범은 2-5세기 경으로 편년되고 있으므로, 당시 금속제 태환식 소환이식이 베트남 남부에서 제작 및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기원전 1500년경 이전부터 기원전후까지 石製 玦狀耳飾을 사용되었으며, 기원후 2-5세기경부터는 점차 동일한 형태의 耳飾들이 金屬製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즉 石製 玦狀耳飾에서 金屬製 太環耳飾으로의 전환 과정이 비교적 잘 보이는 지역이다. 오크에오 출토 石範에서 보이는 太環耳飾의 형태는 가운데가 가늘어지고 양쪽 끝은 나팔형을 한 봉을 둥글게 구부린 것이다. 삼국시대 고분출토의 太環耳飾과는 전반적인 조형감각의 차이가 있지만, 양쪽 끝을 붙이지 않고 약간 떼어서 놓은 점이나 태환의 굽기 등 형식면에서는 삼국시대 太環耳飾과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출토되는 금속제 太環耳飾들은 대부분 수하부가 달리 지 않은 素環耳飾이다. 오크에오의 石範에서 보이는 太環耳飾과 유사한 금속

---

에 대해서는 중국 遼寧省 查海 遺蹟이나 浙江省 河姆渡 遺蹟 등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藤田富士夫, 『日本海をめぐる玉文化交流』, 『日本海學の新世紀』, 日本海學推進黨會議 編, 東京: 角川書店, 2001, 128~142쪽 및 中山清隆, 『繩文文化と大陸系文物』, 『繩文時代の渡來文化』, 淺川利一·安孫子昭二 編(東京: 雄山閣, 2002), 221~224쪽.

18) 河仁秀, 『東三洞貝塚 淨化地域 發掘成果』, 『고고학을 통해 본 가야』, 제2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논문집, 韓國考古學會, 1999, 111~133쪽; 『고대 장신구 - 아름다움과 힘의 조화』,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1999, 12쪽.

제 耳飾들은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주변에서도 자주 발견된다.<sup>19)</sup> 자바에서 출토된 인도네시아의 고대 太環耳飾들은 대부분 금으로 제작되었으며, 제작방식은 주물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도 5). 크기는 직경 11-28mm 정도이며, 무게는 3-60g으로 다양하지만, 20g 내외가 가장 많다. 크기는 한국 고대 太環耳飾들과 비슷하며, 무게도 그다지 차이가 없다. 제작방식은 주물기법을 사용한 예가 많기 때문에, 베트남의 오크에오 출토 石范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바섬 출토 金製 太環耳飾들은 정식 발굴에 의해서 발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다. 대체로 200-700년경으로 편년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대 설정은 삼국시대 고분출토 金屬製 太環耳飾의 유행시기와도 비슷하다. 자바에서는 이러한 太環耳飾의 변형 형태로서 별모양의 耳飾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베트남과 자바섬에서 발견된 것 외에도 삼국시대의 태환식 素環耳飾과 유사한 형태의 금속제 太環耳飾들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여러 섬들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다. 오크에오 유적의 연대로 보아 2-5세기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이들 금속제 太環耳飾들은 근세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사용되어 왔다. 2-8세기경까지의 금속제 太環耳飾은 대체로 주물기법으로 제작되어 속이 짝 찬 것이 대부분이지만, 9세기 이후에는 금판을 두드려서 성형하는 기법도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에서 출토된 9-14세기경의 금제 太環耳飾은 누금세공기법과 판금기법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었으며, 동부 자바에서는 찰흙으로 만들고 타출한 얇은 금판을 씌운 예도 있다.<sup>20)</sup>

삼국시대의 太環耳飾과 동남아시아의 太環耳飾들은 주환부의 형식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그 착장방식도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의 소수민족인 르롱(Lerong) 부족에서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여성들이 귓볼을 뚫고 그 구멍을 늘여서 거기에 여러 개의 太環耳飾을 착장하는 풍습이 있었다(도 6). 이러한 풍습은 1940년대까지 지속되었는데, 귀에 구멍을 뚫고 耳飾을 착장하는 선사시대의 풍습이 근세까지 내려온 것이다.

19) John N. Miksic, *Old Javanese Gold*(Singapore: Ideation, 1990), 63-65쪽.

20) Ann Richter, *Jewelry of Southeast Asia*(N.Y.: Harry N. Abrams, Inc., 2000), 183쪽.

귀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늘리는 풍습은 인도에서 크게 발전하였다.<sup>21)</sup> 인도에서도 太環耳飾과 비슷한 석제 耳飾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기원후 2세기 이후부터 많이 사용된다. 고대 인도의 여러 조각상들에 표현된 耳飾의 표현을 보면 太環耳飾과 유사한 형태들이 상당히 많다. 佛像의 귓볼이 길게 늘어진 것은 석가모니가 고대 인도의 태자였기 때문에 큰 귀걸이를 착용해서 늘어난 것이라는 설도 있듯이,<sup>22)</sup> 고대 인도의 귀족들 사이에서는 귀를 뚫고 거대한 耳飾을 착용하는 풍습이 크게 유행했다.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전 200년 사이에 저술된 인도의 고대 문헌인 『그리하 수트라(Grhya Sūtra)』에 의하면, 인도에서는 각 개인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마다 ‘삼스카라(saṃskāra)’라는 독특한 의식을 치른다. 이 의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장신구로서, 매 단계별로 특별한 장신구를 착용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명명식에서 귀를 금바늘로 뚫고 장식을 매달아주는 것으로서 삼스카라의 첫 단계가 시작된다. 이후 성장하면서 교육을 시작할 때, 종교에 입회할 때, 교육을 끝마쳤을 때, 결혼식, 죽음을 맞이할 때 등 생애의 각 단계에서는 각각 다른 형태와 크기의 장신구를 착용하게 된다. 이 장신구들은 그 의식을 치르고 착용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평생동안 간직된다.<sup>23)</sup> 여기에서 장신구는 착용한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威勢品이며, 동시에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귓볼을 뚫고 커다란 耳飾을 착용하는 피어싱 풍습은 어느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비슷한 시기에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풍습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귀를 뚫고 太環耳飾과 같은 거대한 주환을 가진 耳飾을 착용하는 방식이 인도에서부터 해안을 따라서, 2-8세기경에 인도네시아의

21) 인도에서는 귀를 뚫고 구멍을 늘리는 풍습이 인더스 문명기부터 있었다. Michel Postel, *Ear Ornaments of Ancient India*(Bombay: Franco-Indian Pharmaceuticals, Ltd., 1989), 5쪽.  
 22) 崔完秀, 「佛經에 나타난 佛像의 特相」, 『韓國佛教美術』 韓國의 美 10, 중앙일보사계간 미술, 1979, 204쪽.  
 23) Aarti Aggarwala and Jyotindra Jain, *National Handicrafts and Handlooms Museum*(New Delhi: Mapin Publishing, 1981), 54~58쪽.

자바와 보르네오,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한반도 남부로 이어지는 남해안 경로를 따라 유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귀를 뚫고 커다란 耳飾을 착용하는 방식이 남방 해양문화권의 한 특성이라는 점이다. 이제까지 고신라 고분출토의 각종 금공품에 대해서는 북방계 유목민족의 영향으로만 해석해온 경향이 강하지만, 지금 고찰한 것과 같이 귀에 구멍을 뚫고 太環耳飾과 같은 거대한 耳飾을 착용하는 풍습은 남방계 해양문화권의 한 영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동남아시아의 고대 太環耳飾들은 대체로 드림장식이 달리지 않은 素環耳飾들이다. 이것은 삼국시대의 太環耳飾들이 대부분 垂下付耳飾인 점과는 차이가 있다. 삼국시대 태환식 垂下付耳飾의 主環과 착용방식은 선사시대 玦狀耳飾에서부터 전해지는 남방적 문화요소이지만, 드림장식이 달린 형식은 북방계 문화의 영향이다.

드림장식이 달린 세환식 垂下付耳飾은 중국 동북지방의 흉노, 선비, 부여족들의 유적에서 발견되는 예가 많다. 遼寧省 義縣 保安寺古墓 출토 금제 細環耳飾을 보면, 주환과 중간식, 수하식을 가진 한국 고대의 垂下付耳飾의 구조와 유사하다(도 7). 保安寺古墓은 晋代(265-420)의 북방 유목민족의 고분으로서, 여기에서 출토된 북방계 세환식 垂下付耳飾의 형식이 한반도로 전해진 점이 주목된다. 북방 유목민족들의 耳飾들은 대부분 細環耳飾이며, 아직까지 太環耳飾은 발견된 바 없다.<sup>24)</sup>

그러므로 고구려와 신라에서 출토되는 크고 화려한 太環耳飾들은 이렇게 북방계 문화와 남방계 문화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만나서 새로이 창출된 형식이다.<sup>25)</sup> 특히 이러한 이식들은 주로 신라에서 크게 발전하였는데, 이것은 화려

24) 중국 동북지방에서도 신석기시대의 경우에는 石製 玦狀耳飾의 예가 발견되었으며, 遼寧省 查海遺蹟 출토의 玦狀耳飾이 현재까지 알려진 最古의 玦狀耳飾이다. 그러나 3세기 이후의 금속제 太環耳飾이나 玦狀耳飾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유목민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主環이 큰 耳飾의 사용은 3세기 이후에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북방 유목민족의 耳飾 着裝方式은 물론 피어싱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어싱 풍습은 원이나 淸과 같이 이민족 계열의 왕조에서는 일부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 신라 문화가 북방계 문화와 남방계 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성격이라는 견해는, 신라의 창세신화와 관련하여 제기된 바 있다. 김병모, 앞의 책, 140-150쪽. 필자는 고신라 금공품의

한 황금문화를 가진 신라의 문화적 특성이 북방계와 남방계 문화요소가 융합되어 형성된 새롭고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sup>26)</sup>

#### 4. 圓板形耳飾의 기원과 着裝方式

太環耳飾에서는 북방계 문화 요소와 남방계 문화 요소가 융합된 특징을 보여주는 반면, 남방계 문화요소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圓板形耳飾이다. 신라의 금속제 圓板形耳飾은 垂下付耳飾의 착장이 줄어들고 고층고분의 축조가 현저하게 줄어든 6세기 후반부터 일정 기간 유행하였다. 그러나 고대 한국의 圓板形耳飾의 가장 이른 예는 역시 신석기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선사시대의 원판형이식은 주로 한반도 남부지역, 특히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유행했으며, 모두 토제품이다. 울주 신암리와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는 기원전 4000~3000년경부터 이러한 토제 원판형이식이 사용되었으며, 표면에 조밀한 동심원 문양이 새겨진 납작한 실패형태이다.<sup>27)</sup>

시대를 건너뛰어 기원 전후-1세기경에 해당하는 초기철기시대에도 土製 원판형이식은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사용되었다. 昌原 茶戶里 65호분을 비롯하여 함안 도항리 고분 등에서 발견된 토제 원판형이식은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원판형이식의 착장풍습이 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철기시대의 토제 원판형이식들은 대부분 동심원이 없는 민무늬이며, 크기는 지름 2.3~2.6cm 정도이다.<sup>28)</sup>

---

제작기법 중에서 남방적 요소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으며, 李松蘭은 고신라의 토우장식 토기와 남방문화권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하게 밝힌 바 있다. 周旻美, 『三國時代의 打出技法 研究』, 『科技考古研究』 第3號, 1998, 125~165쪽; 李松蘭, 『古新羅 古墳出土 土偶裝飾土器에 보이는 南方的 要素』, 『考古歷史學志』 第16輯, 2000. 3, 465~495쪽.

26) 태환식 垂下付耳飾의 유행이 고구려와 신라에 한정된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러한 독특한 耳飾着裝의 풍습은 고구려와 신라 문화의 동질성을 보여주는 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27) 동삼동패총 출토품에 대해서는 河仁秀, 앞의 논문 참조. 울주 신암리 출토품에 대해서는 國立中央博物館, 『新岩里』 II, 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21冊, 1989, 17쪽 참조.

고총고분이 발달한 4세기말부터 6세기 후반까지는 圓板形耳飾의 예가 거의 없으나,<sup>29)</sup> 고총고분이 소멸되는 6세기말부터 금은제 圓板形耳飾들이 신라의 일부 상류층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금은제 원판형이식은 모두 불교 유적에서 출토되었으며, 최근까지 용도미상품, 혹은 실패로 알려져 왔다.

1915년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출토된 銀製 圓板形耳飾은 2층 탑신 중앙에 안치되어 있던 방형석함 내에서 발견되었다(도 2). 분황사 모전석탑은 634년 선덕여왕의 발원으로 건립된 탑으로, 출토된 방형석함은 건립당시 안치된 불사리장엄구의 외함이다.<sup>30)</sup> 각종 장엄구와 공양구와 함께 발견된 이 圓板形耳飾은 직경 2.4cm이며, 측면이 오목하고 표면에는 조밀한 동심원문이 있다. 불사리장엄구와 함께 각종 장신구를 공양품으로 매납하는 풍습은 인도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耳飾을 공양품으로 매납했던 가장 이른 예는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31)</sup> 이식의 형태는 다르지만, 분황사 모전석탑 출토의 銀製 圓板形耳飾은 매납 당시 신라 왕실에서 사용했던 耳飾의 한 종류로 추정된다. 분황사탑의 발원자가 선덕여왕이었으므로, 이 銀製 耳飾은 선덕여왕이 하사한 공양품으로서 상류층에서 사용되던 장신구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황룡사지 서금당지와 9층목탑 사리공에서도 역시 은제 원판형이식이 발견되었는데, 형태는 분황사 출토품과 유사하지만, 장식문양은 동심원대신 쌍조문이 새겨져 있어서 주목된다.<sup>32)</sup> 이 중에서 서금당지 출토품의 경우에는 아주

- 28) 茶戶里出土品에 대해서는 李健茂 外,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 進展報告(IV)」, 『考古學誌』 第7輯, 1995. 12, 56쪽 및 圖版 42-⑤ 참조. 道項里出土品에 대해서는 慶南考古學研究所 編, 『道項里·末山里 遺蹟』(本文, 慶南考古學研究所, 2000, 48쪽, 30-③ 설명 참조. 그 외 도항리 출토품은 현재 함안박물관에 전시중이다.
- 29) 현재 유물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경주 황오리고분 북곽에서 유사한 유물이 발견된 바 있다. 朝鮮古蹟研究會, 『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36, 43쪽 및 圖版 47-⑤ 참조.
- 30) 분황사 석탑 불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河田貞, 「芬皇寺塔裝置佛舍利莊嚴具の諸相 - 日本・飛鳥寺(法興寺)塔址出土遺品との關連性」, 『芬皇寺の諸照明』, 新羅文化際學術發表會論文集 제20집, 1999, 243~270쪽 참조.
- 31) 중국 河北省 定縣 華塔址에서 사리장엄구와 함께 細環耳飾 1쌍이 발견된 바 있다. 河北文化局文物工作隊, 「河北定縣北魏石函」, 『考古』, 1966. 5. 252~266쪽.
- 32) 이 유물의 문양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秦弘變, 「皇龍寺 木塔址 發見 花樹對禽紋 金具」, 『李弘植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新丘文化社, 1973, 569~582쪽.

가는 세립과 세선으로 누금세공한 은제품으로, 제작기법이 정교하고 우수한 작품이다(도 8). 황룡사 출토품 중에서 9층목탑지 사리공 출토품은 불사리장엄구와 함께 납입된 공양품으로 추정되며, 탑의 창건연대인 선덕여왕대(643년)의 耳飾일 가능성이 높다. 서금당지 출토품도 역시 7세기 중반이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송림사 전탑에서 출토된 금제 원판형 이식 한 쌍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하는 원판형이식 중에서 유일한 금제품이다(도 9).<sup>33)</sup> 측면은 오목하고 표면에는 조밀한 동심원이 새겨져 있다. 송림사전탑 출토 圓板形耳飾은 드물게 한 쌍이 전하는 것으로 중요하며, 제작연대는 공반 출토된 불사리장엄구의 형식과 관련해서, 8세기 초반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간단하게 한국 고대의 원판형이식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원판형이식은 한반도 남부지역의 매우 한정된 계층에 한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라의 경우에는 왕족과 같은 최상층과 관련된 장신구였던 것으로 보이며, 8세기 중반부터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판형이식의 분포지역은 신석기시대의 경우에는 일본, 중국 강남지역, 동남아와 인도 등 결상이식의 분포지역과 유사하다.<sup>34)</sup> 그러나 4-5세기 이후에는 동남아와 인도, 신라에서만 보이며, 중국 내륙권이나 북방 유목민족계 문화권이나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된 바가 없다.

원판형이식의 착장풍습이 가장 성행한 지역은 인도이다. 인도에서는 초기의 인더스문명에서부터 圓板形耳飾의 사용이 보인다. 측면이 오목한 납작한 실패형태의 원판형이식은 형태와 크기를 달리하면서 모헨조다로, 하라파, 코삼비와 같은 신석기시대 유적지들에서 상당수 출토되었다(도 10).<sup>35)</sup> 인도 원판

33) 송림사 전탑 출토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金載元, 「松林寺 博塔」, 『震檀學報』 제29·30 합집호, 1966, 15~28쪽 참조.

34)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원판형이식의 출토지는 8000년전으로 판단되는 日本의 上野原遺蹟 出土品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비롯한 일본 신석기시대의 玦狀耳飾 및 圓板形耳飾에 대한 여러 자료를 제공해주신 부산시립박물관의 河仁秀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형이식의 출토예는 상당히 많으며, 형태와 재료도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선사시대의 圓板形耳飾은 대체로 흙으로 만들어서 구운 것이 많으며, 석제나 수정제로 만들어진 것도 종종 보인다. 직경이 6~7cm에 이르는 비교적 대형의 예들도 많으며 무게는 60g 이상 나가는 예도 종종 있다.

인도의 금속제 圓板形耳飾은 기원전 500~200년경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중인도지역에서 출토된 청동제 圓板形耳飾의 경우에는 조밀한 동심원이 표면에 새겨지고 측면이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로, 시대와 재료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분황사나 송림사 출토품과 상당히 유사하다. 조밀한 동심원이 새겨진 圓板形耳飾은 청동제뿐만 아니라, 납이나 은으로 만든 것도 있다. 제작방식은 주물도 있고, 금속판을 접합해서 만들기도 하며, 금속띠를 돌돌 말아서 만들기도 한다.<sup>36)</sup> 기원전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인도의 각종 조상에는 이러한 圓板形耳飾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耳飾을 귀를 뚫고 착장한 모습이 상당히 많이 표현되어 있다. 기원전 1세기 경의 바르후트 스투파의 난간에 조각된 남자 공양자의 귀에는 청동제 圓板形耳飾을 귀에 착장하고 있는데, 귓불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귀를 뚫고 耳飾을 착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인도 구자라트 지역에서 근세에 사용된 銀製 圓板形耳飾의 경우에는 표면이 원추형으로 변형되기는 했으나(도 11), 측면이 오목하게 들어가고 표면에 조밀한 동심원이 새겨져 있는 점 등은 고대의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들 圓板形耳飾의 착장방식은 역시 귓불을 뚫고 그 구멍에 끼워서 착용하는 피어싱 방식으로, 太環耳飾의 착장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太環耳飾은 고리를 귓불 구멍에 걸기 때문에 구멍의 크기가 耳飾보다 클 수 있지만, 圓板形耳飾은 귓불의 구멍 크기와 딱 맞는 크기의 것을 착장하는 점이 차이가 있다.

圓板形耳飾의 착장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도서지역에서 근세까지 상당히 유행하던 풍습이었다. 19세기 말까지 圓板形耳飾을 착장한 인도인들의 모습

35) 인도에서 이러한 耳飾의 기원은 기원전 6000년경부터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Michel Postel, 앞의 책, 5쪽 및 82~100쪽.

36) 위의 책, 28~34 쪽 참조.

들은 당시 인도를 방문했던 서양의 인류민속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자주 기록되었다. 인도 아루나찰 프라데쉬의 출리타카 미쉬미 부족의 여성이 귓볼 구멍에 착용한 것은 銀製 圓板形耳飾이다(도 12). 이 부족에서는 남녀 구별없이 銀製, 혹은 竹製耳飾을 착용했다고 한다.

이렇게 大形 主鏤을 가진 耳飾을 피어싱 방식으로 착용하는 것은 착용자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기 위한 威勢品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귓볼의 구멍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년간에 걸쳐 장기간 동안 점차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멍이 없는 成人이 이러한 원판형이식을 갑자기 착용할 수는 없다. 즉 이들 장신구는 장기간에 걸쳐 착용자의 신분이 확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인 것이다. 인도에서와 같은 圓板形耳飾의 착용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에서도 20세기 초반까지 유행하였다. 형태와 크기, 재질은 각각 지역과 시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측면이 오목하고 원판에 가까운 기본적인 형태들은 지속된다. 근세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원판형이식이 긴 원통형, 짧은 원통형, 혹은 뿔 모양의 耳飾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었는데, 이는 각 민족마다 각기 다른 양식으로 耳飾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도 13).

圓板形耳飾의 기원이 인더스문명에서부터인지, 아니면 동아시아 지역이었던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신석기시대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지만, 태환이식과 마찬가지로, 기원후 2-8세기경에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지역 일부와 같이 남방계 해양문화권에서 주로 유행하였으며, 신라에서도 역시 그러한 영향이 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에는 북방계 垂下付耳飾의 전래와 함께, 한반도에서 새로이 태환식 垂下付耳飾이 창안되면서 圓板形耳飾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아직까지 圓板形耳飾이 발견된 바가 없다. 반면 남방계 문화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신라에서는 圓板形耳飾이 8세기 초반까지 사용되었다. 이것은 6세기 중엽 이후 또다시 남해로를 따라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남방계 문화의 한 풍습이 신라의 상류층에서 전래되어 다시 유행했음을 알려준다. 고신라말 垂下付耳飾의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圓板形耳飾이 다시 상류층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원인이 무엇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이에 대

해서는 신라 문화에 잔존하는 또다른 남방적 요소들에 대한 검토와 당시 신라 사회의 변동과 관련하여 심도깊게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5. 맺음말

본고에서는 한국 고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각종 耳飾에 대해서 그 기원과 착장방식에 대해서 비교문화적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던 신라의 耳飾들은 당시의 여러 문화적 속성을 잘 드러내 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귓볼을 뚫어서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을 점차 늘려 거대한 주환이 달린 太環耳飾이나 圓板形耳飾을 착장하는 피어싱 풍습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지역에서부터 한반도 남부지역과 일본에까지 이어지는 독특한 남방 해양성 문화의 한 단면이다. 이러한 남방계 문화가 신라에 전해졌음은 신라 고분과 유적에서 출토되는 여러 耳飾들을 통해서 확인된다.

이제까지 신라의 문화는 독특한 분묘제도, 금공품의 발달, 장신구 형식의 독특함 등으로 인하여 북방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신라에서는 太環耳飾이나 圓板形耳飾과 같은 남방계 문화의 풍습도 상류층을 중심으로 유행했다. 이것은 북방계와 남방계 문화가 융합되어 형성된 신라 문화의 독특하고 복잡한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다.

통일신라가 당과 교섭을 재개하는 8세기 이후에는 이러한 남방계 문화가 점차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8세기 중엽이후의 太環耳飾이나 圓板形耳飾은 현재까지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과 교섭하면서 중국 문화, 특히 중국 복식제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귀를 뚫고 耳飾을 착장하는 피어싱 풍습은 조선시대까지 면면히 이어져 왔다.

조선시대 중기까지 우리나라에서 귀를 뚫고 耳飾을 착장하는 풍습이 있었던 것은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에서 자주 보인다.<sup>37)</sup> 특히 젊은 남자들이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는 풍습을 금지한 선조 5년의 금지령으로 볼 때, 16세기경까

지 이러한 풍습은 상당히 널리 유행했다고 추정된다.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는 풍습은 20세기 초반까지 평안도지역에서 전해지고 있었다.<sup>38)</sup> 물론 신라시대와 같은 太環耳飾이나 圓板形耳飾은 아니지만, 유교가 지배적인 사회이념으로 받아들여지던 당시의 우리나라에서 귀를 뚫던 古代의 풍습이 잔존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고대의 장신구는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여기에서는 장신구의 한 종류인 耳飾을 통해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고대 사회의 문화적 특성의 한 단면을 고찰해 보았다. 문화에 대한 접근방식과 이해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선입견이나 편견일 것이다. 古代 韓國 耳飾의 착장방식인 피어싱 방식은 儒敎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풍습일지도 모르지만, 고대부터 지속적으로 전해져온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없이 한국 고대 사회의 새로운 한 단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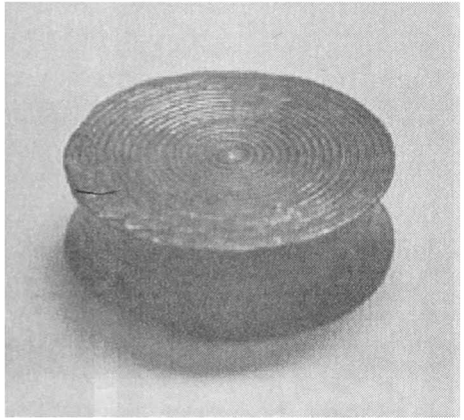
[주제어] 耳飾, 新羅, 古墳, 피어싱, 남해로

---

37) 조선시대에 남녀가 귀를 뚫고 귀걸이를 했던 풍습에 관한 각종 문헌에 대해서는 조희진, 『선비와 피어싱』, 동아시아, 2003, 150~164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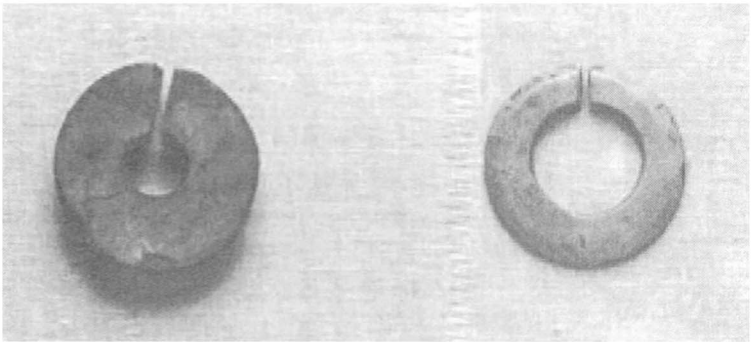
38) 국립중앙박물관·한국사진박물관 편, 『유리원관으로 보는 풍물 1891-1930』, 포토라인, 1998, 55쪽 및 105쪽 참조

《도판목록》



〈도 1〉 「金製太環耳飾」 경주 보문동 부부총 출토. 길이 8.7cm. 6세기.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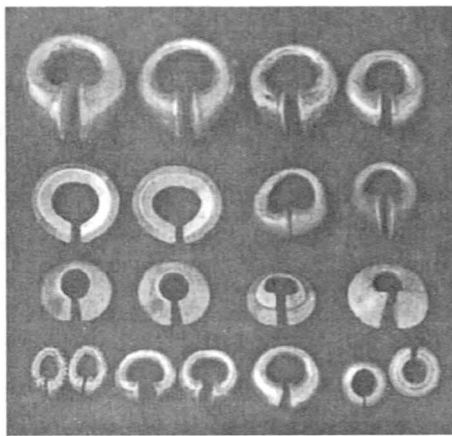
〈도 2〉 「銀製圓板形耳飾」 경주 분황사모전석탑 출토. 지름 2.4cm. 634년경. 국립경주박물관.



〈도 3〉 「石製玦狀耳飾」 베트남 동다우(Dong Dau) 출토. 기원전 1500년경. 하노이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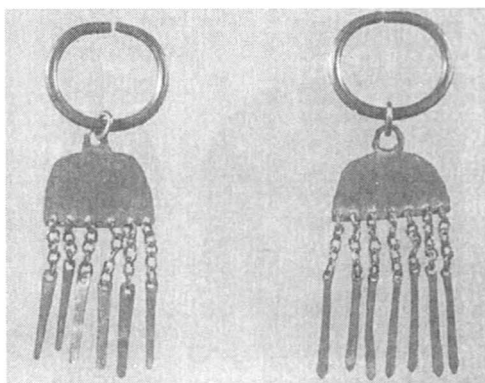
〈도 4〉「石范」 베트남 오크에오 출토. 2-5세기. 호치민시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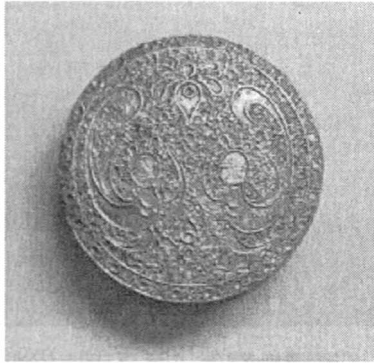
〈도 5〉「金製太環耳飾」 인도네시아 자바섬 출토. 직경 1-3cm. 3-8세기. 톰슨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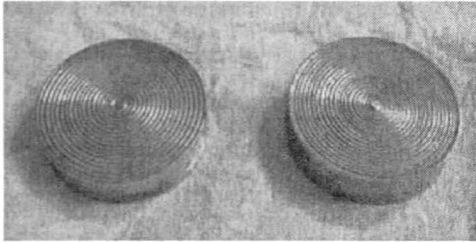
〈도 6〉「르롱(Lerong) 부족의 여인」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1912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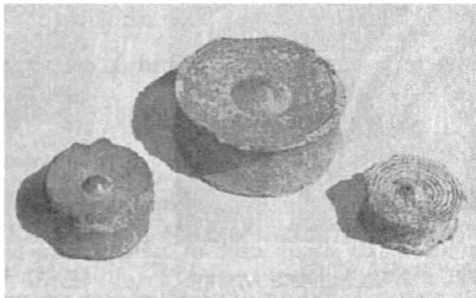
〈도 7〉「金製細環耳飾」 중국 遼寧省 義縣 保安寺古墓 출토. 3-5세기. 요녕성박물관.



〈도 8〉 「銀製圓板形耳飾」 경주 황룡사  
서금당지 출토. 직경 2.6cm.  
6세기후반-7세기전반. 국립경주박물관.



〈도 9〉 「金製圓板形耳飾」 경북 칠곡 송림사전탑  
출토. 직경 2.9cm. 8세기전반. 국립대구박물관.



〈도10〉 「土製圓板形耳飾」 인도 코삼비(Kaushambi)  
출토. 직경 5.5-6.5cm. 신석기시대.



〈도11〉 「銀製圓板形耳飾」 인도 구자라트(Gujarat)  
발견. 직경 4-4.5cm. 20세기. 개인소장.



〈도12〉 「출리카타 미슈미(Chulikata Mishmi)  
부족의 여인, 인도 아루나찰 프라데쉬(Arunachal  
Pradesh) 주. 1872년 이전.



〈도13〉 「귀걸이를 착  
장한 남성, 동남아시아  
(베트남?). 20세기 초  
촬영.

# A study on wearing ear ornaments in the Ancient Korea

Joo, Kyeong-Mi

The previous studies on the jewelry from the ancient Korean tombs were mainly interpreted as the jewelry for the special use of ritual burying. They were regarded to be made solely for the dead not for the everyday use of the living. This view is, however, reversed to emphasize the everyday use of the jewelry. The previous view that ear ornaments with a thick ring(*Taebuun-Yisik*, 太環耳飾) could not be worn because of the size of main ring should be contradicted based on the comparison with the ear ornaments from the Southeast Asia.

This study examined three types of ear ornaments of ancient Korea, and how to wear those ear ornaments. The first and second type are ear ornaments composed of a main ring and pendants. In regarding to the size of the main ring, the first one is the one with a tiny ring(*Sebuun-Yisik*, 細環耳飾), and the second type is the one with a thick ring. The last type is the discal type ear ornament. Furthermore, this study made a thorough comparison of the formal origins and wearing style of each ornament of the Southern Asia.

The origin of *Taebuun-Yisik* is traced to *chueok*(塊) type ear ornaments which were used in the Southern Chinese area and the Southeast Asia during the Neolithic era. By piercing earlobes and inserting rings to them, people could wear ear ornaments and those styles were prevalent even in the Southeast Asia of modern age. The tradition of piercing earlobes and making them elongated is presumed to be originated from the Indus civilization of India. In India, such tradition is still alive. The custom of wearing

the ear ornaments with a thick main ring within pierced earlobes was widely spread from India to Southeast Asia, Southern China, and Southern Korean peninsula, which indicates the transmission of the Southern Asian culture through the Southern Sea.

However the hanging pendants of the ear ornaments of Korean *Taebuun-Yisik*, especially those from *Silla*, unlike those of Southern Asia. This is the special feature of Korean ear ornaments, the combination of earrings with hanging pendants from the Northern Asia with thick main ring from the Southern Sea. Therefore, *Taebuun-Yisik* shows the originality of Silla culture by mixing two different elements of Southern culture and Northern culture and creating a new style.

The style of wearing ear ornaments through pierced earlobes came to disappear with the increased Chinese influences since the mid 8th century. Only the custom of wearing *Sebuun-Yisik* survived up until the modern age. The tradition of wearing ear ornaments through pierced earlobes could seem very unfamiliar to the people who are accustomed to the Confucian culture, but it is one of the surviving traditions from the ancient time. Free from the received conceptions or prejudices on the ancient society and culture, the research on the ancient culture including ear ornaments should be conducted in the spirit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Key Words] ear ornament, Silla, tomb, piercing, Southern Sea Route